

[ 기획 ]

光 산업, 이젠 빛고을 빛냈다

6 '光엑스포 2009' 성공하려면

■ 국내외 빛의 축제 어떻게 있나

일반인 접근 쉽게 생활 속 광기술 부각

광주시가 광(光) 관련 엑스포로서는 세계 최초로 오는 2009년 광주 '光 EXPO 2009'를 개최한다. 시와 산자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光 EXPO 2009'는 총 100억원의 사업비(국비 60억원, 시비 30억원, 민자 10억원)를 투입, 세계 50개국 100만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하는 국제행사다. '光 EXPO 2009'는 2009년 9월 한 달 동안 '빛, 인류의 미래'를 주제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일대에서 펼쳐진다. 세부 일정 미확정이다.



2009광엑스포는 광주에서 매년 열리는 국제광산업전시회와 광기술 컨퍼런스 등 국제적인 전시·컨벤션 행사와 각종 이벤트 행사를 통해 세계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지난 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6국제광산업전시회. (광주일보 자료사진)

◇행사 기본계획 광엑스포는 크게 전시·컨벤션행사와 부대 행사, 이벤트 행사, 연계 행사로 나눠 치러진다.

전시·컨벤션행사는 세계 각국의 광관련 전문가와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2009 국제 광산업전시회'와 제9회 광기술 컨퍼런스 등 2개 행사다.

국제 광산업전시회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60일간 열리는 대규모 전시회다. 50개국 350개 광산업 업체들이 4개의 주제관에 맞춰 500부스를 설치, 1천여종의 품목을 전시한다. 전시 품목은 ▲광통신기기-기간광전송장치, 분배망, 광전송장치 수발광소자 ▲광정밀기기-레이저기기, 내시경, 분광기기, 광학식 화확분석기 ▲광정보기기-평판디스플레이, 3차원디스플레이, 프로젝션디스플레이 등이다.

광기술 컨퍼런스는 9월2일~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00명의 국내외 저명학자와 관련업체 전문가, 학자 등 4천여명이 참석해 10개 세션으로 나눠 학술 회의를 진행한다.

부대행사로 열리는 국제LED조명 디자인 콘테스트에서는 생활조명 국제공모전을 통해 입상작을 시상한다.

상무지구 시민공원 일원에는 빛의 조형물과 빛의 공원을 조성해 엑스포 기간 중 도심이경을 연출하는 이벤트가 행사 기간 동안 펼쳐진다.

특히 광엑스포는 광주시가 주최하는 '빛의 축제'와 연계해 진행된다. 엑스포 기간 중 상무지구 일대와 광주전반에서 각종 불꽃 대회와 레이저 및 조명 쇼 등이 어우러진다.

◇성공 개최를 위한 과제 광엑스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의 산업적인 측면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를 구성해야 하며, 엔터테인먼트의 요소를 발굴해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일상생활에서 응용되고 있는 광산업과 광기술을 알기 쉽게 밖으로 끌어내 생활 범주 내에서 광산업·광기술의 역할 및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소비제품, 완제품 속에 숨어 있는 광기술을 외부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연출하는 시도가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의 내부구조와 차량, 도로 등의 사용자 환경을 직접 구성, 완제품 속에서 기능하는 광기술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경우 관람객들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사 주최인 광주시와 주관인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충분한 준비를 위해 이미 개최된 다양한 형태의 엑스포와 빛과 관련된 축제는 물론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형 축제 등의 행사를 면밀히 분석

석해 관련 지식 및 노하우를 습득해야 할 것이다.

특히 행사가 일관된 주제 아래 추진되기 위해서는 ▲메이저급 광기업 행사 참가 유치 ▲지역 행사 아인 국가적 행사 ▲한국 광산업의 제도와 ▲광과 연계된 산업으로의 파급 확대 등을 염두에 두고 기획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관대행사도 능력이 있고, 대의신인도가 높은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광주시가 연계행사로 기획중인 빛의 축제를 광엑스포와 동시에 개최되도록 한 만큼 사업의 효율성과 상호연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단계에서부터 두 개의 행사가 함께 기획돼야 한다.

◇엑스포 이후 사후 활용방안 엑스포 부지는 전시회 종료 후 산업·주거·연구용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방안을 마련하고 전환이 용이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4개의 주제관은 앞으로 광박물관으로 활용하는

국가적 행사로 추진하고 '빛의 축제'와 연계 광박물관 활용 등 사후 대책 함께 마련해야

Table with 2 columns: Year, Event Name. Lists various expo events from 2000 to 2007.

등 엑스포 관련 시설을 관광상품화하거나 상용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R&D특구 지정 및 광산업 클러스터의 기반 시설로 활용함과 동시에 광주가 전략적으로 추진중인 광·디자인·첨단부품소재 산업의 핵심기술이 집적화된 명실상부한 첨단과학산업단지의 자원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엑스포 관련 시설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연계한 다양한 국제행사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이탈리아 '루미나리에' 대표적 미·일·프랑스 다양한 축제 열려

광주시가 오는 2009년 개최할 광(光)엑스포는 광산업을 주제로 한 최초의 박람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엑스포의 성격상 축제 분위기 연출이 필수조건인 만큼 '빛'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도 기획되고 있다.

광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빛과 관련된 국내외 유명 축제를 살펴본다. 빛과 관련된 행사는 대부분 이탈리아어에서 기원한 '루미나리에(빛 또는 조명)'라는 말로 불린다.

루미나리에에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돼 독일, 스페인 등 유럽은 물론 미국을 거쳐 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 최초로 열렸다.

한국에서도 2003년부터 시작돼 해마다 크고 작은 행사들이 지자체 별로 열리는 등 루미나리에에는 보편적인 행사로까지 자리를 잡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루미나리에 발원지답게 매년 국가 전역에서 수백 개의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그중 마리오 라이트사에 의해 계획돼 100년 이상을 이어져 오는 이탈리아 남부 스크라노 지방의 축제가 가장 대표적이다.

스페인 발레시아의 '발렌시아 불꽃축제'는 일주일 동안 불꽃놀이를 벌이는 중세 시대 이래의 전통축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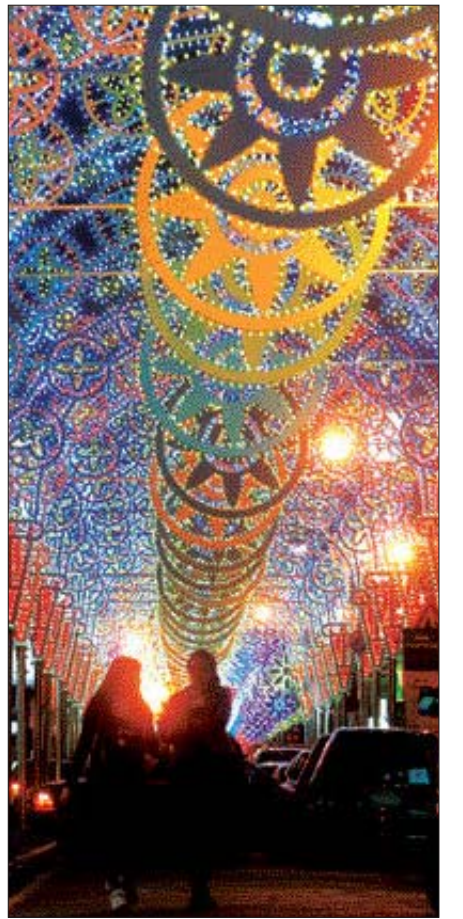
프랑스 리옹 빛의 축제는 빛의 예술가와 건축가들이 도시를 새롭게 연출하는 축제이며, 프랑스 혁명축제(매년 7월13일~14일) 기간에는 에펠탑 등을 무대로 도시 전역에서 레이저·영상 쇼 및 불꽃놀이도 펼쳐진다.

미국 오글레비 빛의 축제(필라델피아)는 전시작품이 10km에 걸쳐 펼쳐지는 초대형 행사이며, 오스틴 빛의 길 축제(텍사스)와 피츠버그 점등축제(필라델피아)도 자국 문화를 빛을 통해 알리는 행사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의 최초 루미나리에인 고베 등축제는 고베 대지진 재해 희생자의 진혼을 위해 시작된 행사로 지난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네부다 축제는 일본을 대표하는 불의 축제로, 하카타등축제는 등불 3만개가 지역 사회를 화합시키는 상징으로 여겨진다.

중국 홍콩강성 하얼빈시에서 열리는 국제빙등축제와 자공시의 국제등축제는 해외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대표적인 관광축제이다.

국내에서는 2003년 부산이 최초로 루미나리에를 선보였으며 이어 2004년 서울, 2005년 고양에서 루미나리에가 열린 이후 전국적으로 빛과 관련한 축제가 다양한 행사에 등장하고 있다.



지난 해 광주시 동구 충장로 축제 기간 동안 예술의 거리에 설치된 루미나리에. (광주일보 자료사진)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Real estate advertisement)

LCE타워(주) 첨단지구 LCE타워... (Real estate advertisement)

일가공인중개사... (Real estate advertisement)

한일지도판매(주) 2007 최신중주지도 책 판매개시!!... (Real estate advertisement)

효성공인중개사... (Real estate advertisement)

동아공인중개사... (Real estate advertisement)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2006년도 광주지역 예식장 선호도!! (극장식 웨딩홀) 만족도!! (음식이 맛있기로 소문난) 1위업체선정!!... (Real estate advertisement)